

광주 최대 '창업페스티벌' 개막... '창업 성공 기회도시' 속도

오늘까지 DJ센터... 대기업·새싹기업·투자사 등 500여곳 참가 투자유치 설명회·학술회의·대기업 혁신전략 소개 등 행사 다채

광주시가 2일 지역 최대 규모의 창업 페스티벌을 개막하고 이틀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창업 문화 확산 및 창업 유망주 발굴을 위한 '2023 광주 창업페스티벌(Gwangju Startup Festival, GJSF 2023)' 개막식을 갖고 '창업 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 실현 등을 다짐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창업페스티벌에는 글로벌 대기업 14개사, 220개 새싹기업(창업기업), 국내외 투자사 250개사 등 500여 업체들이 참가했다.

특히 행사 첫날인 이날 현대자동차, KDB산업은행, 삼성 씨랩(C-Lab), 한전, 교보생명 등 대기업 관계자 5명이 대기업 개방형혁신전략(오픈이노베이션) 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기조연설과 함께 '광주 창업생태계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의를 진행해 관심이 집중됐다.

이어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기업인 'Sixty AI'의 맷 엘리스 대표는 "미국 스타트업 생태계와 성공 스토리"를 주제로, 실리콘밸리의 벤처투자사 'SCV-SB'의 토마스 토이 상무이사는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리스트의 관점'을 주제로 학술회의(콘퍼런스)를 진행했다.

이 밖에도 이날 투자사를 대상으로 총 58개 새싹기업(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설명회를 비롯한

KDB산업은행의 대표 프로그램인 'KDB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in 광주'를 통한 스타트업 5개사의 투자유치 설명회 등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 이틀째인 3일에는 이동형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의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와 김재욱 행사코디네이터의 '스타트업 투자사례 및 투자 전략' 강연 등이 예정돼 있다.

또 KT,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메가존 클라우드 등 국내외 대기업 14개사가 참여하는 개방형혁신전략(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창업기업 간 협업모델 발굴과 상담·정보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도 준비돼 있다.

한국벤처투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청년창업사관학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등 창업유관기관별 특화분야 창업프로그램 등도 진행된다. 창업페스티벌은 누구나 현장 접수를 통해 방문할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누리집을 통해 볼 수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제조업 기반이 열악한 광주에서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키우는 방법 중 하나가 창업성공률이 높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창업페스티벌을 통해 모든 창업가와 투자자가 함께 만나고 미래를 설계하며 유니콘 기업을 향해 나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23 광주창업페스티벌이 2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행사장을 관람하고 있다. 3일까지 진행되는 페스티벌은 220개 새싹기업과 250개 투자사, 국내외 대기업 14개사가 참가하는 지역 최대 규모로 인공지능(AI)-에너지-모빌리티 등 6개 산업 분야별 120여 개의 지역 유망 새싹기업이 참가, 창업 아이템을 선보이는 한편 투자사-협업 기업 등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갖는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민선8기도 '공항 이전' 신경전

도, 강기정 시장 '합의문 폐기' 발언 유감 표명... "약속 지켜라"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을 둘러싼 광주·전남의 신경전이 민선 8기에서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전남도는 2일 강기정 광주시장의 '2018년(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작성한 민간·군 공항 이전 합의문이 결국 없어졌다(폐기됐다)'는 발언과 관련, 유감을 표명하고 "사·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기로 선언했을 뿐, 전남도는 한 번도 폐기한 적이 없고 그 취지와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전남도 반박이다.

광주시의 경우 2018년에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했고, 2020년에는 "군 공항 이전과 별개로 민간 공항은 약속대로 무안 공항으로 이전·통합하겠다"고 했지만 6개월도 못가 "민간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해결하겠다"고 말을 바꾸더니 급기야 "합의문이 없어졌다"고 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일각에서 민선 8기에도 소모적 신경전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들어 "광주시는 최소한 '군 공항 문제가 해결되면 민간 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이라는 대원칙을 조속히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공항 분야 최상위 계획인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한다고 적시된 만큼 협약(2018년) 대로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무안공항으로의 광주 민간공항 이전이라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려는 것이다.

합평군은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언급하는 데 따른 불편함도 드러냈다. 전남도는 "합평군은 지난 9월5일 '합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발표 당시, 모든 국책사업을 전남도와 함께 협의하고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면서 "광주시는 향후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합평군에 대한 언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시는 항공사 재정 지원, 관광재 유치, 광주시 공직자들의 무안공항 이용 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전남 '마을기업 지역플랫폼 시범사업' 2곳 선정

여수·해남 마을기업 연합체... 플랫폼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 기대 전남도, 올해 행안부형 마을기업 전국 최대 선정으로 역량 과시

행정안전부 신규 공모사업인 마을기업 지역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에 여수 마을기업 연합체와 해남 마을기업 연합체가 선정됐다. 3개 마을기업 연합체를 최종 선정할 이번 공모에서 전남도가 2개를 차지, 전남 마을기업의 성장성과 마을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마을기업 지역플랫폼 구축사업은 3개 이상의 마을기업이 연합체를 구성하고 판로 확보, 교육, 예술, 청년 분야에서 공동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하는 것으로 최대 3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특히 마을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향이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바뀐 뒤 처음으로 실시한 공모이기에 이번이 거둔 성과의 의미가 크다. 이번엔

선정된 여수 마을기업연합체는 송시마을(주), 여수미미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금요도섬마을방풍(유) 등 3개 기업이 손을 모았다.

오란다, 딸기모찌, 방풍증류주 등 각 기업 대표 제품을 공동 브랜드해 여수 특색이 담긴 마을기업 제품 패키지를 개발하고 다양한 제품군을 토대로 국내외 판로를 확대한다.

해남 마을기업 연합체는 땅끝햇살농업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비슬안(주), 해남햇살농업조합법인으로 구성됐다.

유기농 쌀과 해남 고구마로 만든 면으로 컵라면을 개발하고 해남 마을기업 라이브커머스스튜디오를 개설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국힘 도당, 전남 국립의대 신설 조속 추진 건의

국힘의힘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김기현 당 대표 주재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 참석, 전남의 현안인 국립의대 신설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현 당 대표, 이만희 사무총장을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와 시도별 원외당협위원장 대표자가 참석, 내년 총선 대비 지지를 제고를

위한 지역 민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전남 대선공약 조기 이행과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지원을 건의하고 취약지역 총선 출마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중앙당 차원의 전남 국립의대 신설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연중캠페인

1회용품 제로

2023. 11. 24. 부터

1회용품 사용 억제 품목 확대 및 준수사항 강화

<p>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p> <p>* 장래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함</p>	<p>사용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접시·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종이컵 1회용 발대·젓는막대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광고선전물
<p>대규모 점포</p> <p>(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p>	<p>사용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용 봉투 및 소핑백 (종이재질은 제외,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을 경우는 제외)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광고선전물
<p>도소매업</p> <p>(매장면적 33㎡ 초과 업소)</p>	<p>사용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용 광고선전물 <p>무상제공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용 봉투 및 소핑백 (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종이재질은 제외, 생선·정육·채소 등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을 경우는 제외)
<p>체육시설</p> <p>(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p>	<p>무상제공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 억제)
<p>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p>	<p>사용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합성수지용기 제외)

*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3조에 따라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